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6월 정기회의록

일시 17/6/13(화) 17:00

장소 자미원

참석 김희자, 류지숙, 박정근, 배정학, 이윤임, 이종안, 전미희, 전영지, 홍수만 등 9인

기록 김기민(사무처장 겸 운영위 간사)

- 운영위원 명단 및 성원 확인

| 구성 / 총원 (10명) | 출석 | 위임 | 불참 |
|-------------------------|----------|----|----|
| 1. 김희자 (의장, 주민자치분과위원장) | ○ | | |
| 2. 류지숙 (교육분과위원장) | ○ | | |
| 3. 박정근 (건강분과위원장) | ○ | | |
| 4. 배정학 (복지분과위원장) | ○ | | |
| 5. 이윤임 (추첨직 운영위원) | ○ | | |
| 6. 이종안 (부의장, 주민자치분과 추천) | ○ | | |
| 7. 전미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 | | |
| 8. 전영지 (교육분과 추천) | ○ | | |
| 9. 차정화 (건강분과 추천) | | | ○ |
| 10. 홍수만 (부의장, 복지분과 추천) | ○ | | |
| 합 계 | 9 | | |

※ 총원 10명 중 과반 이상(9명) 출석으로 성원됨

- 안건

- 사무처 구성 및 사무처장 임명 논의
 - 사무처 조직(사무처-운영팀) 및 사무처장직에 성북동천 김기민 총무 임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감사 후보 검토

| 내부/회원 | 외부/비회원 |
|--------------|------------------------|
| 김태석 (주민자치분과) | 김정연 (성북구 마을지원활동가) |
| 유제훈 (복지분과) | 박정애 (사단법인 독서새물결모임) |
| 이용성 (건강분과) | 배미영 (함께하는성북마당 공동대표) |
| 최도용 (주민자치분과) | 이소영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 - | 이지연 (석관동 보육반장) |

- 내부 감사의 경우 최도용, 이용성 회원님 두 분 모두 바쁘신 분들이라 활동 참여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염려됨. 최도용 님도 정릉2동 마을계획단 활동하면서 잘 알고 있고, 이용성 님의 경우 건강분과 활동으로 연락 주고받으며 느낀 바로는 두 분 모두 하시는 활동이 많아 바빠 보였다. 외부 감사 두 분 인품은 믿지만 바쁘신 분들이라 열성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다. (박정근)
 -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다. 직함만 갖고 활동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종안)
 - 감사직의 경우 집행 단위는 아니고 집행부가 운영규약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잘 추진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나 분과위원에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감사에게는 감사직에 부합하는 역할을 요청하면 된다고 본다. (김기민)
- 그 간의 활동 경험을 볼 때 내부 감사는 운영위 차원에서 선임하고, 외부 감사는 조직 밖의 외부에서 선임했던 것 같다. (류지숙)
 - 운영위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이 감사인데 운영위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미희)
 - 운영규약상 임원인 운영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홍수만)
- 후보 추천
 - 초기 논의 당시 참여하셨던 마을지원활동가 중 한 분인 김정연 님 추천한다. 그 외에도 초기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섭외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전미희)
 - 독서새물결 박정애 님도 추천하고 싶다. (이종안)
 - 일단 두 분은 회원이 아니라 내부 감사 후보는 될 수 없고 외부 감사 후보로 할 수 있다. (홍수만)

- 추가 후보 제안한다.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거론된 후보자 분들이 주로 갑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 을 지역도 고려하면 좋겠다. (전미희)
 - 후보들에게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보고,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분을 검토하자. 전화 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게 권유드려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김희자)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비 기준
 - 운영위 및 각 분과위별로 자체 결정 및 관리
 - 임원 회비(안) : 월 1만원
 - 감사에게도 회비를 각출할 수 있으려면 운영위원회비가 아닌 임원회비로 이름을 바꾸기로 한다.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회비 면제.
 - 센터는 내부 논의 후 결정 내용 공유하겠다. (전미희)
 - 6/13 현장 회비 납부 : 박정근, 배정학, 이윤임, 이종안, 전영지, 류지숙 등 6인 6만원 납부금 현장 수납
- 신규 분과 구성
 - 개설 기준 : 5인 이상, 1년 이상 소속 분과 유지(1년 내 분과 이동 제한)
 - 운영되던 분과도 요건이 안되면 분과가 없어지는 건가. (전미희)
 - 분과 해체는 아니고, 활동 보류로 봐야 할 것 같다. (홍수만)
 - 이것은 신규 구성시 요건이지, 기존 분과를 해체하거나 활동을 보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미희)
 -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안되지 않나 생각한다. (류지숙)
 -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는 말자. (박정근)
 - 미래 예측은 어렵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인원이 5명 미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한다면 개설 기준 인원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분과 활동을 중단시키는 건 안된다고 본다. 신규 분과 구성시 개설 요건을 최소 5인 이상으로 두되, 이후 활동은 각 분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운영위가 개별 분과에 사람이 들고 나는 것까지 고려하여 분과 활동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미희)

- 그럼 분과 구성 이후에는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홍수만)
- 분과위원장 등과 같이 분과 운영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이동을 제한하되, 일반 분과위원들의 분과 이동까지 운영위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전미희)
- 본인들이 움직이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이윤임)
- 분과위원장, 분과 추천 운영위원, 간사는 최소 1년은 변동 없이 간다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 같다. (홍수만)
- 분과대로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역할, 기능이 생겨날텐데 어떤 문제로 인해 안하겠다 하면 일을 진행할 때 지장이 있을 수 있다. 1년 의무 활동 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류지숙)
-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 활동하다 교육 분과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개인의 기호와 성향인데, 안정적인 분과 활동을 위해 1년 기준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미희)
- 하다 보면 내부 알력 관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수가 있다. 문제가 생겨도 분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이동 규제를 두고,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류지숙)
- 갈등 구조가 생긴다면 운영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갈등으로 인해 분과를 옮기는 회원을 막기 위해 1년이란 이동 규제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전미희)
- 한 분과 내에서도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활동이 잘 연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협조, 협력, 협동하는 것.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류지숙)
- 같이 하면 된다. 분과가 4개여도 서로서로 똑같은 일이므로 같이 하면 된다. 이해하면 된다. (박정근)
-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신규 분과 조직할 때에는 최소 5인 기준으로 한다. 분과위원장, 분과 추천 운영위원, 간사는 책임감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1년 이동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도까지만 내부 기준 정해두고 나머지는 각 분과별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전미희)

- 활동하면서 자기 생각을 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된다. 쌓이면 오해가 생기고. 운영위원, 분과위원장들이 뚝뚝 뭉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자. (김희자)
- 조직 기준
 - 개설 기준 : 최소 5인 이상
 - 분과위원장, 분과 추천 운영위원, 간사는 최소 1년 이상 소속 분과 유지 (1년 내 분과 이동 제한)
 - ※ 일반 분과위원은 분과 구성 기준이 미달되지 않는 선에서 이동 가능.
- 도시환경분과 신규 개설
 - 구성원 : 김동임, 김분선, 김세운, 오창민, 이선영, 이학재, 지은숙 등 7명
 - 오창민, 이선영 님의 경우 1순위 도시환경분과였으나 당시 분과 구성이 안되어서 2순위인 교육 분과로 배정되었음
- 신규 회원 확대
 - 신규 개설 분과 중심으로 임원단 방문하여 협치성북시민협이회의 그간 활동 이력에 대한 설명,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홍수만)
 - 확대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장단과 사무처장 맡고, 만나는자리에 필참하기로 한다. 운영위원은 확대 자리 참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민관TFT 협조 요청
 - 협치 기본교육
 - 일정 : 7/4(화), 7/11(화) 19:00~21:00 (총 2회)
 - 장소 :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 내용 : 왜 민관 협치는 필요한가? / 민관 협치의 기본요소와 한계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서 협치주민리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구에서 하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이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회원님들도 시간 되면 교육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 (홍수만)
 - 앞으로 협치성북시민협이회의가 추진할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서 '협치주민리더교육' 진행할 예정. 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협이회의가 교육 추진할 때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일정 가능하다면 가급적 기본교육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 협치 캠프 - 1차 협치성북총회

- 일정 : 7/18(화)~7/19(수), 1박 2일
- 장소 : 횡성 오크밸리
- 협의회에서 5~8명 참석 요청 (명단은 6/20까지 전달)
- 말은 총회고, 실상은 워크숍 형태라 보시면 된다. (홍수만)
- 참석자 명단 : 김기민, 김희자, 박정근, 류지숙, 이윤임, 전영지, 홍수만 등 7명 (+ 센터 전미희 or 고경남)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신청서 초안 검토 (붙임)

- p.4 지역시민사회 현황 및 실태 ~ p.8 시민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시민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운영위원 검토 의견 요청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은 협치성북시민협회의의 단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식상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협치성북시민협의회 회원 단체인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등 3곳의 단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한다. 컨소시엄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추진과 집행 역할을 맡는 실무 추진단이라고 보면 된다. (홍수만)
-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3개 단체 모두 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센터의 경우 센터 사무국 내부 결정과 센터 운영법인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의 승인도 받았다. 이사회에서 사업신청서 공람을 요청했으며, 협의회 운영위 내부 검토 과정 거친 뒤 전달키로 했다. 함께살이성북 이사회가 오는 6/22이니 그 전까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반영한 사업신청서 수정안을 전달토록 하겠다. (김기민)
- 컨소시엄 참여단체 중 한 곳인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단체 소개서는 6/16(금)까지 작성하여 사무처에 전달키로 한다.